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4 주일
제28권 4호 (가해) 2007. 12. 23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묵상]



준비 하 신

우리를 고단한 잠에서 깨워 일으켜

새날엔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머리맡에 생수(生水)처럼 준비하신

당신의 뜻을

비로소 어머니를 통해 만났습니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1단계 종강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1단계 종강 오후 7:00 오후 8:00 1단계 종강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김중돈 스테파노, 허동수 루스, 안솔리
특전미사	(생) 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아오스딩 김용현 다윗, 김풍길 바오로의 자녀들
주 일 낮 미사	(연)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이은완 야고보 정선결 모니카, 김중돈 스테파노, 김영식, 김장순, 신문란 한영우 요셉과 박용렬 아네스, 노요셉과 김태라사 허동수 루스와 정자 레지나, 노디락코와 노가리스도 노향애 안나, 이종무 바오로와 순자 테레사, 손재학 필립 (생) 이중민 요셉, 박진숙 엘리사벳, 토린스 서3반 가족들 토린스 남4반 가족들, 송호민과 김나영 가정, 박영룡 요셉 오세원 아타나시오 가정, 최귀환 펠릭스, 이민상 요한 김충섭 마틴과 정심 크리스티나 가정, 이재정 사도 요한 임종택 베르나르도, 임종택의 자녀들, 최희철 요한 김서량 토마스과 정원재 그레이스 가정 태안 해양오염 피해자들, 재무평의회 위원들과 봉사자들 김다두, 구마리아네 수녀님, 새 영세자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Isaiah)	7,10-14
화답송	◎야훼님 들시려 하시니 야훼님은 영광의 임금이시다. <전례성가 61, 대림 제4 주일 가해> ○야훼님 것이로다, 땅이며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온 누리와 거기있는 그 모든 것이. 바다위에 그 터전을 마련하시오 강물 위에 그물을 굳히셨도다.◎ ○야훼의 산으로 오를 이 누구인고, 거룩한 그 곳에 서 있을 이 누구인고, 그 손은 깨끗하고 마음 정한 이. 헛군대에 정신을 아니쓰는 이로다.◎ ○야훼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잠음을 받으리라. 이런 이야 주님을 찾는 족속, 야곱의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이로다.◎	
제 2독서	로마서 (Romans)	1,1-7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 음	마태오 (St. Matthew)	1,18-24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30	124
봉헌	364	191,222
성체	384	289,295
파견	124	130

8.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을 믿습니다.(계속)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인간

에덴동산의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 모든 열매는 다 따먹
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창세
2,17)고 명령하셨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금지 명령은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보살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 영
역을 보장하신 것이다. 그런데도 인간은 헛된 욕망과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명령을 어김으
로써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와 혼란, 온갖 불행
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이와 같이 인간들이
하느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를 단절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름
으로써, 하느님께 받았던 복을 저주로 만들어 버린 근원적인 잘못
을 우리는 '원죄'(原罪)라고 말한다.

▶하느님을 떠난 인간의 처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올바른 인간의 길을 알 수 있는 이성
적인 판단력, 양심에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까지도 부여하셨다. 또한 하느님께서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요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인지를 제시해 주셨고, 그 결과까지
도 가르쳐 주셨다. 궁극적인 선택은 인간에게 달려 있고, 인간
은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간은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심판을 자초하여 생명과 사랑이신 하느님과 결별하게 되었다.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살던 시절의 기쁨과 평화 대신에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떠난 인간
의 비참한 삶의 현실이다.

▶하느님의 구원 약속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범죄 이야기는 우리에게 암담한 좌
절감을 안겨 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뱀과 여자가 원수 사
이가 되고 서로 투쟁하게 되겠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
리라.'(창세 3,15 참조)는 말씀으로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
과 희망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에 대비되는 '원복음'(原
福音)이라고 말한다. 이 약속과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
내 성취하셨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간에서 이렇게 선포
하고 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
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
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려졌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로마 5,19-21)

◆(계속 - CBCK 제공)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돌아가신 어머니는 밥 인심이 좋았다. 명절 때도 고향에 못 간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 아침상을 차려 주셨다. 우리 집 근처에 장애인이 살았는데 그 아버지마저 병이 나서 몸져누웠다. 그러자 어머니가 한 달 가까이 밥을 해서 나르신 적도 있었다. 어렸을 때 한번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니 모르는 사람들이 마루에 걸터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그 때 나는 그 사람들의 행색이 남루하고 얼굴도 무서워 얼른 뛰쳐내방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사람들은 밥을 동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다. “엄마! 그런 사람들 더럽고 무서워. 우리 집에서 밥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러면 못쓴다. 세상에서 배가 고피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단다. 엄마는 밥하는 재주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어머니라고 평생 그런 일들이 왜 힘이 안 드셨을까. 그래도 힘든 기색 한 번 없으셨던 어머니가 해 주시던 따뜻한 밥이 그리워진다.

오늘 복음은 처녀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가 하느님의 특별한 뜻이라는 것이 요셉에게 알려지고 고민하던 요셉이 마리아를 맞아들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젊은 청년 요셉이 사랑하던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에 혼비백산했다. 얼마나 요셉은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웠을까. 믿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를 느끼지는 않았을까. 당시의 율법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요셉이 얼마나 고민하고 힘든 결단을 했는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은 남모르게 조용히 파혼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때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마태 1,20-21).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또한 마리아의 믿음의 응답은 우리가 깊이 평생 묵상해야 할 주제이다. 마리아는 천사의 자세한 말씀을 듣고 나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고 했다. 이것은 초인적인 믿음과 완전한 신뢰이다. 철저한 순종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여라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철저한 믿음의 자세이다. 고통스런 사건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닮아야 하는 자세인 것이다. 한 여인의 위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받은 역사는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주영 크레센치아	정미영 미카엘라	김정웅 요한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례 테레사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강정현 시몬	유철희 바오로	이민상 요한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김금자 테레사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4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마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목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목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3,790단 ☞ 총 합계: 232,407단

✦ 주님, 어서 오소서! ✦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분!
 임마누엘! 당신이 저기 오시니
 마당에 꽃바구니 걸어놓고 마중나갑니다.

☞ 성탄 · 송년 · 신년 미사 안내 ☞

- ◆ 목요반 세례성사: 23일 오전 11시 주일미사 중
- ◆ 성탄 전야 미사 : 24일(월) 밤 9시
- ◆ 성탄 대축일 : 25일(화) - 영어미사: 오전 9시30분
 대축일미사: 오전 11시
- ◆ 2007 송년미사 : 12월31일(월) 밤 9시
-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1일(화), 오전11시
 * 평일(수/목) 미사 시간대가 저녁 7시30분으로 환원되었습니다.
- ◆ 2007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 중에 내주세요.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내주신 교우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는 분은 12월 중에 마감하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 볼리비아 어린이를 위한 의류를 모읍니다.
 - 빈첸시오회가 볼리비아 코차밤바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해 의류를 모읍니다. 새옷이 아니더라도 깨끗이 손질된 옷이면 그 곳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큰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 * 문의: 이용식 베드로 빈첸시오 회장 ☎310-962-8414

☉ 축하합니다. ☉

오늘 주일(23일) 8명의 형제 자매들이 세례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성사로써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의 일원이 된 새 영세자들에게 한껏 축하를 드립니다.

♡김지향 엘레나 ♡성은영 에밀리아 ♡문명희 엘리사벳
 ♡신혜수 요세피나 ♡유지운 레이첼 ♡임시철 야고보
 ♡오복순 마리아 ♡이영숙 수산나

◆ 새해(2008년/무자년/가해) 교회달력을 선물로 드립니다.

-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을 주제로 한 2008년 교회달력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립니다. 달력그림은 독일 트리어 국립도서관 소장품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채색화입니다.
- 한 가정당 1부씩만 가져 가십시오.(성물판매대와 사무실)
-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은 2부 가져가세요.

* 주일학교 /한국학교 소식 *

◆ 주일학교 겨울방학

- 12월23일(주일)~1월20일(주일)까지
- 개강 : 1월27일(주일)

◆ 주일 학생미사(영어미사) : 주일 오전 9시30분에 계속

◆ 한국학교 겨울방학

- 12월23일/30일 두 주일만 방학합니다.
- 개강 : 1월6일(주일)

◆ L.A. 대교구 Fingerprint 스케줄

- 가톨릭교회내 미성년자에게 봉사하는 성인들(주일학교/한국학교 교사, 각 분야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한 Fingerprint 스케줄에 우리 본당이 배정받았습니다.
- 2008년 1월12일(토) : 10:00 am~1:40 pm
 3:20 pm~5:20 pm
 - 관계자들은 사무실에 예약한 후 빠짐없이 지문을 찍어 주십시오. ☎850-6253 김순희 모니카 청소년분과위원장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우명						성전헌금	교우명					
	강지혜	고천용	권태만	김관기	김병태	김양금		고천용	권태만	김관기	김병태	김양금	김옥
	김원태	김 욱	김윤진	김주량	김찬구	민소예		김윤진	김주량	김찬구	민소예	박동수	배기엽
	박동수	박정순	박현주	배기엽	소성덕	신철규		소성덕	오일순	우영희	유경자	육근주	이경용
	오일순	우영희	유경자	유근태	육근주	이경용		이용식	이인석	이일길	이재용	이현주	이효세
	이용식	이인석	이재용	이현주	이효세	장수창		장수창	정기섭	정상봉	주태청	지경수	차인수
	전선미	정기섭	정상봉	정인식	주태청	지경수		최진수	한창주	현석주			
	차인수	최진수	최현영	한창주	현석주	홍석인							
	이크리스												
합계 : \$4,990							합계 : \$3,760						
미사헌금 : \$2,699													

◆ 차동엽 신부님 예수성탄 대축일 강론 테입 드립니다.

- 한국천주교 미래사목연구소 소장으로서 계신 차동엽 신부님이 예수성탄 대축일을 강론한 주일복음 묵상 테입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번 주일 토요일특전 미사와 주일 낮미사후 선물로 가져 가세요.

- 문의 : ☎ 310-569-3940 최기남 야고보 종교교육부장

◆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 결성 앞두고 회원 초대

- 마라톤은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능력을 높여주는 종합운동입니다. 30명 회원의 동호회를 결성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앞으로 정식 트레이너를 초빙하여 LA 마라톤 등 여러 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의 : ☎ 310-740-1502 김철민 요한

◆ 가톨릭 신자용 상본 콜링(전화)카드 판매

- 가격 : \$20, 유효기간과 연결 수수료가 없는 경제적인 전화카드입니다. 분당 2.7센트의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과 통화 가능합니다.

* 사무실에 비치 중 ☎ 213-385-5564 김안나

♫ 각 단체 송년모임 ♫

- 사목상임위원회 : 23일(주일) 오후 3시, 강당
- 요셉회 : 23일(주일) 오후 1시, 송림장
☎ 310-995-5226(이근태 세르지오 총무)
- 대견회 : 25일(화) 오후 3시, Toyo Sushi
441 W. Knox St. #300, Torrance(윌마트몰내)
☎ 310-533-8500 정하상 바오로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 23일 : P.V. 1반 (육개장 \$3)
- 12월 30일 : 토런스 서 3반 (파로국밥 \$3)

남가주 소식

◆ 이냐시오 영신수련

- 2008년 1월 4일(금) 오후 4시~8일(화) 오후 1시
- 피정 주제 : 하느님과의 만남
- 지도 : 이영찬(사도요한) 신부와 예수회원들
- 참가비 : \$350
- 곳 : 꽃동네 피정관(37885 Highway 79 S. Temecula)
- 문의 및 신청 : 성아그네스성당 사무실(323-731-4433)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30분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라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12/7(금) 오후 7시 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레 스프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프라스티카 782-1025 12/14(금) 오후 7시 30분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2/7(금) 오후 7시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12/15(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12/4(화) 오전 11시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12/15(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이석진 가브리엘 326-5867 12/14(금) 오후 7시 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진희 한나 720-7898 12/14(금) 오후 6시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임형미 사비나 325-6810 12/15(토) 오후 5시 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12/29(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715-2609	권오상 바오로 257-8416 12/7(금) 오후 7시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최기남 야고보 891-1527 12/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12/14(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12/7(금) 오후 7시
	3	윤은경 마카렐라 265-0856	이영석 크리스토폴 377-7063 12/14(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내 안에 주님을 모실 구유를 만든다.”

제대 주위에 꾸며진 대림환에 네 개의 촛불이 모두 빛을 밝혔다. 이는 구원자 메시아의 거룩한 탄생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성탄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마음은 나이 어린 꼬마들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내용과 양상은 다를지라도 그 근본은 같을 것이다. 거리를 나서면 벌써부터 성탄 분위기가 피부에 와 닿는다. 교회에 뿐 아니라 호텔, 상가, 식당들에도 크리스마스트리가 오색 반짝이는 전등으로 꾸며져 즐비하게 놓이고 또 걸려있음을 본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 카드와 선물을 벌써부터 주고받으면서 성탄을 축하하고, 소망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어떻게 보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비신자들이 오히려 들뜬 분위기 속에서 성탄을 기다리고 또 지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도 비신자들처럼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성탄 카드와 선물 주고받는 데만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선물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을 없을 것이지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인가 말이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복음의 첫머리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한 마태오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마태오가 저술한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전자(前者)는 인간의 이름이요, 후자(後者)는 하느님의 이름이다. 즉, 예수는 인간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며, 동시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어야 한다. 마태오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예수의 합법적인 아버지로 서술함으로써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였다. 마태오는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예수님께 8번이나 더 부여한다.(마태 9,27; 12,23; 15,22; 21,9.15 등)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만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 밝혔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밝히는 일이 남았다는 것이다. 이 일은 하느님께서 스스로 추진하신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의 잉태’(이사 7,14),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이다.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를 하느님의 계획과 이 계획에 대한 동정녀 마리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짐을 시사하고 있다.(루카 1,26-38 참조) 또한 루카는 마리아의 합법적인 남편 요셉을 두세 번 언급할 뿐 전적으로 배경에 머물게 한다.(루카 1,27; 3,23 참조) 그러나 마태오는 요셉과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에 관한 사실은 간단하게만 밝히고, 오히려 요셉을 부각시킨다. 마리아의 잉태가 자신과 무관한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의 심정을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랴. 복음은 요셉이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으나, 마리아를 법대로(신명 22,20-21 참조) 다루지 않고 자비로이 선처(善處)하려 하였음을 시사한다. 이 때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다윗의 후손인 요셉에게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여 설득시키고, 요셉은 이에 순명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천사를 통하여 하느님과 요셉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중에 요셉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에게 천사의 명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다.(25절)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합법적인 아들이자 다윗의 자손이 되었고, 동정녀를 통한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된 셈이다.

오늘 복음에서 인간의 아들이요, 하느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이름이 있다. 바로 ‘임마누엘’이다.(23절)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린 적은 없다. ‘임마누엘’은 실상의 이름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히는 의미상의 이름이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하느님의 참다운 만남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예수님께서 저 바깥 마구간 구유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느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구유를 만들어야 한다. 이 일은 맨 먼저 요셉의 과제이기도 했다.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안에 구유를 만들어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과의 거래에 충실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아 좋은 기원을 담은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가 드러났다. 요셉처럼 내 안에 임마누엘 주님을 모실 구유를 마련했으니, 너에게도 그런 구유가 마련되기를 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박상대 마르코 신부